

나스닥, 국제유가, 밀 가격 급락 이후 기술주가 상승 주도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미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무조건적’ 방식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하자 달러와 국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하락 전환. 이런 장 초반 변동성 확대 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국제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 에너지 업종 급락 여파로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다우 -0.13%, 나스닥 +1.43%, S&P500 +0.22%, 러셀2000 +0.96%)

특이 종목

•아마존(+2.47%)은 7/12~3일 개최되는 프라임 데이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더불어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로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상승 요인. 이는 알파벳(+1.15%), 메타(+1.78%), MS(+1.09%), 애플(+1.15%) 등 대형 기술주 및 세일즈포스(+2.13%)등 소프트웨어 업종의 강세를 견인. 반면, 엑손모빌(-5.77%)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큰 폭으로 하락. 철광석의 하락으로 BHP(-4.07%), 리오 틴토(-5.14%)등 광산 업종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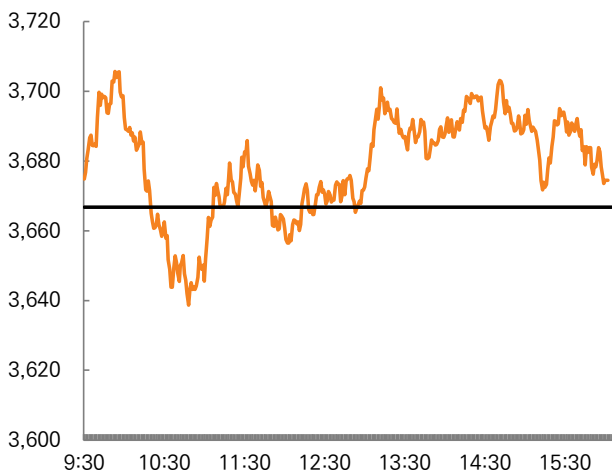
한국 증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78%, MSCI 신흥 지수 ETF는 0.3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0.8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0%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장 초반 연준의 여전한 공격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변동성을 확대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무조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을 시사한 점은 부담.

•그렇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검토하며 기술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료와 곡물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 이 결과 국제유가를 비롯해 밀 등 곡물 가격 하락을 촉발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기술주 중심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 지수등락률 | Close | D-1(%) | 지수등락률 | Close | D-1(%) |
|---------|-----------|--------|----------|-----------|--------|
| KOSPI | 2,440.93 | -0.43 | 상해종합 | 3,316.79 | +0.96 |
| KOSDAQ | 798.69 | -0.43 | 홍콩항생 | 21,075.00 | +1.10 |
| DOW | 29,888.78 | -0.13 | 베트남 | 1,217.30 | -1.56 |
| NASDAQ | 10,798.35 | +1.43 | 유로스톡스 50 | 3,438.46 | +0.31 |
| S&P 500 | 3,674.84 | +0.22 | 영국 | 7,016.25 | -0.41 |
| 캐나다 | 18,930.48 | -0.39 | 독일 | 13,126.26 | +0.67 |
| 일본 | 25,963.00 | -1.77 | 프랑스 | 5,882.65 | -0.06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통화정책 보고서 ② 국제유가 급락

미 연준은 일년에 두 번 ‘통화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장이 출석해 의회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22일(상원), 23일(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17일(금) 통화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관련 보고서에서 연준은 노동시장은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공급은 타이트해 실업률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고 발표. 그런 가운데 기업들의 고정투자 및 가계 지출은 강세를 유지해 경기는 견고하다고 주장 했으며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 시키기 위해 ‘무조건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는 2021년 12월 5.8%에서 4월에는 6.3%로 상승해 198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가속화에 의해 주도. 근원 물가는 4월에 4.9%로 하락해 작년 12월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경제 활동: GDP는 2021년 4분기 연율 6.9% 급증 했다가 1분기에 1.5% 감소로 하락. 큰 변동은 순 수출과 재고의 변동성을 반영. 그렇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전체 경제 활동의 강도를 잘 반영하는 소비지출과 기업 고정투자는 1분기에도 성장. 가장 최근 지표에 따르면 고정 투자가 완화 될 수 있으나 소비 지출은 여전히 강해 2분기에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통화정책: 상당한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해 위원회는 양적 긴축을 시작 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금리를 인상. 특히 강력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가 안정 회복 위해 ‘강력한’ 노력을 진행 할 것

결국 연준은 이번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보고서 발표 후 달러화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국제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하자 미 증시가 장 초반 상승분을 뒤로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를 보임

미국의 5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치며 예상을 하회.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 여기에 미국 5월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과 같은 0.4% 하락해 3개월 연속 둔화되며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를 높이며 급격하게 하락. 더불어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13일 발표했던 시추 생산성 보고서에서 퍼미안 분지의 원유 생산량이 7월에는 하루 530만 배럴을 넘어 서는 등 생산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하락 요인.

여기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연초에는 3/4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으나, 현재는 50% 이상이 아시아 시장으로 운송 되고 있다고 발표. 실제 인도가 기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전체에서 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8%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입국이 되었으며 중국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 유가 하락 요인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방 물자 생산법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곡물과 비료 수출을 늘릴 것이며, 군사작전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한 점도 국제유가와 밀 등의 곡물 가격의 하락을 촉발

이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국제 금리의 상승폭과 달러화의 강세폭이 축소돼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



대형 기술주 강세 Vs. 에너지 업종 부진

아마존(+2.47%)은 7/12~3일 개최되는 프라이م 데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더불어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로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상승 요인. 이는 알파벳(+1.15%), 메타(+1.78%), MS(+1.09%), 애플(+1.15%) 등 대형 기술주 및 차터 커뮤니케이션(+6.41%), 워너브라더스(+4.18%) 등 스트리밍 업종, 세일즈포스(+2.13%), 인튜이트(+2.80%) 등 소프트웨어 업종의 강세를 견인. 표적 항암제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인 씨젠(+12.72%)은 머크(-0.32%)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모더나(+5.74%)는 FDA가 6개월 미만의 아이를 위한 코로나 백신 주사를 승인 후 상승. 진동닷컴(+5.19%)은 CEO가 음식 배달로 사업 확장을 언급하자 강세.

크루거(-7.27%)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매출 감소 우려로 급락. 어도비(-1.18%)는 견고한 실적 발표 후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한때 7.4% 급락했으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자 낙폭 축소 마감. 엑손모빌(-5.77%), 셰브론(-4.57%), 코노코필립스(-8.47%) 등 에너지 업종은 바이든의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큰 폭으로 하락. 철광석 등 여타 원자재 가격도 큰 폭 하락하자 BHP(-4.07%), 리오 틴토(-5.14%), 프리포트 맥모란(-3.01%) 등 광산 업종도 하락

| 주요 ETF | | | |
|---------------------|--------|---------------------|--------|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원유시추업체 ETF (XOP) | -7.28 | 대형 가치주 ETF (IVE) | -0.40 |
| 에너지섹터 ETF (OIH) | -4.27 | 중형 가치주 ETF (IWS) | +0.16 |
| 소매업체 ETF (XLY) | +1.09 | 소형 가치주 ETF (IWN) | +0.28 |
| 온라인소매 ETF (EBIZ) | +2.65 | 대형 성장주 ETF (VUG) | +1.09 |
| 금융섹터 ETF (XLF) | +0.29 | 중형 성장주 ETF (IWP) | +1.37 |
| 기술섹터 ETF (XLK) | +0.92 | 소형 성장주 ETF (IWO) | +1.70 |
|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 +0.58 | 배당주 ETF (DVY) | -0.64 |
| 클라우드 ETF (CLOU) | +3.26 | 신흥국 고배당 ETF (DEM) | -0.50 |
| 미국 리츠 ETF (VNQ) | +0.76 |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 -0.06 |
| 주택건설업체 ETF (XHB) | +0.46 | 미국 국채 ETF (IEF) | +0.03 |
| 바이오섹터 ETF (IBB) | +3.53 | 하이일드 ETF (JNK) | +0.57 |
| 헬스케어 ETF (XLV) | -0.06 | 물가연동채 ETF (TIP) | +0.05 |
| 곡물 ETF (DBA) | -0.59 |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 +0.20 |
| 반도체 ETF (SMH) | +0.82 | 모멘텀 ETF (MTUM) | -1.37 |

| US Sector Index | | | | |
|-----------------|----------|--------|--------|----------|
| S&P 500 | Close | D-1(%) | D-5(%) | D-1개월(%) |
| 통신 | 183.37 | +1.31 | -4.58 | -9.33 |
| 경기소비재 | 1,065.21 | +1.22 | -5.54 | -10.73 |
| IT | 2,174.44 | +0.99 | -4.90 | -10.23 |
| 부동산 | 243.21 | +0.64 | -5.40 | -9.98 |
| 금융 | 512.37 | +0.31 | -4.88 | -9.61 |
| 헬스케어 | 1,393.22 | +0.02 | -4.51 | -8.86 |
| 소재 | 468.80 | -0.11 | -8.28 | -11.82 |
| 산업재 | 720.96 | -0.23 | -5.82 | -10.20 |
| 필수소비재 | 711.82 | -0.41 | -4.39 | -10.62 |
| 유틸리티 | 327.17 | -0.95 | -9.17 | -10.71 |
| 에너지 | 555.65 | -5.57 | -17.16 | -12.56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바이든과 푸틴의 발언으로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78%, MSCI 신흥 지수 ETF는 0.3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90.8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0%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미 증시가 급락하자 한 때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여전히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을 비롯한 경기 부양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낙폭이 축소. 여기에 일본의 BOJ가 여타 국가들과 달리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 다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유입되자 상승 전환하지는 못하고 KOSPI는 0.43%, KOSDAQ도 0.43%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장 초반 연준의 여전한 공격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변동성을 확대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무조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을 시사한 점, 가장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7월 75bp 금리인상을 주장한 점 등도 부담.

그렇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검토하며 가솔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료와 곡물 수출을 늘릴 것이며 군사 작전 이후 관계 회복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 점도 주목. 이러한 정치적인 노력이 국제유가를 비롯해 밀 등 곡물 가격 하락을 촉발해 물가 상승을 제한 시킬 수 있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 실제 금요일 관련 소식과 미국의 원유와 밀 생산 증가 기대로 관련 품목이 급락하자 미 증시의 상승 특히 나스닥의 상승이 확대.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최근 하락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견고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산업생산 둔화

미국 5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mom +1.4%)나 예상(mom +0.4%)을 하회한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침. 제조업 생산량은 지난달 발표(mom +0.8%)나 예상(mom +0.4%)과 달리 전월 대비 0.1% 감소. 공장 가동률은 지난달 발표(78.9%)보다 증가한 79.0%를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79.2%를 하회

미국 5월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과 같은 0.4% 하락해 3개월 연속 둔화. 4가지 구성 항목이 둔화 되었으나 5개 구성 요소는 증가했으며 평균 근무 시간은 유지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 및 공급 증가 기대로 급락

국제유가는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데 이어 미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하는 시추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퍼미안 분지의 원유 생산량이 7월에는 하루 530만 배럴을 넘어 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공급 증가 이슈가 부각되자 급락. 더불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연초에는 3/4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으나, 현재는 50% 이상이 아시아 시장으로 운송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러시아 원유 공급 차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

달러화는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특히 엔화가 BOJ의 통화정책 유지 소식으로 달러 대비 2% 넘게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4%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도 소폭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

국채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단행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중 한 때 큰 폭으로 상승. 특히 단기물의 상승폭이 컸음. 여기에 닐 카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을 지지 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위원들도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도 영향. 다만, 장 후반 국제유가의 급락과 밀 가격의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자 국채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며 마감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산업생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곡물은 밀이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 달러화의 강세에 이어 미국의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옥수수과 대두도 따뜻하고 습한 기후로 작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5.67%, 철근은 2.65% 하락.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109.56 | -6.83 | -9.21 | Dollar Index | 104.650 | +0.98 | +0.48 |
| 브렌트유 | 113.12 | -5.10 | -6.81 | EUR/USD | 1.0499 | -0.47 | -0.19 |
| 천연가스 | 6.94 | -6.97 | -21.54 | USD/JPY | 135.02 | +2.13 | +0.45 |
| 금 | 1,840.60 | -0.50 | -1.86 | GBP/USD | 1.2241 | -0.90 | -0.60 |
| 은 | 21.68 | -1.34 | -1.56 | USD/CHF | 0.9699 | +0.34 | -1.83 |
| 알루미늄 | 2,498.00 | -0.26 | -6.79 | AUD/USD | 0.6932 | -1.63 | -1.79 |
| 전기동 | 8,961.50 | -1.25 | -5.14 | USD/CAD | 1.3030 | +0.62 | +1.99 |
| 아연 | 3,523.50 | -1.51 | -4.58 | USD/RUB | 57.4999 | +0.24 | -1.18 |
| 옥수수 | 731.00 | -0.54 | +1.46 | USD/BRL | 5.1538 | +1.95 | +5.03 |
| 밀 | 1,046.75 | -4.01 | -3.50 | USD/CNH | 6.7092 | +0.37 | -0.31 |
| 대두 | 1,537.50 | -0.37 | -1.96 | USD/KRW | 1,287.30 | +0.13 | +1.45 |
| 커피 | 227.40 | -1.90 | -0.61 | USD/KRW NDF1M | 1,290.87 | +0.26 | +0.92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미국 | 3.226 | +3.04 | +7.01 | 스페인 | 2.746 | -14.10 | -3.30 |
| 한국 | 3.795 | +2.30 | +30.50 | 포르투갈 | 2.700 | -14.00 | -9.60 |
| 일본 | 0.228 | -3.10 | -2.50 | 그리스 | 4.031 | -23.90 | -36.60 |
| 독일 | 1.661 | -5.30 | +14.50 | 이탈리아 | 3.448 | -14.90 | -16.40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